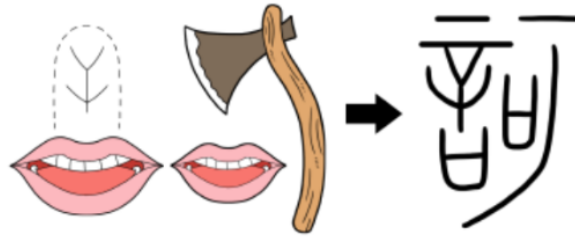


회의문자 ⓘ

7
-
1



歌

노래 가

歌자는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歌자는 哥(노래 가)자와 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言(말씀 언)자와 可(옳을 가)자가 결합한 訶(꾸짚을 가)자가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소전에서 訶자가 '꾸짚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哥(노래 가)자에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歌자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哥자에 이미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의 欠자를 응용해 본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訶

금문

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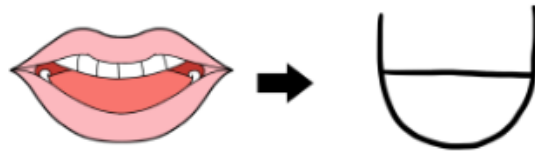
소전

歌

해서

상형문자 ⓘ

7
-
2



口

입 구

口자는 '입'이나 '입구', '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口자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본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에 나온 口자를 보면 凵자 모양을 하고 있어 위아래의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네모난 모습으로 바뀌면서 더는 상하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口자는 입을 그린 것이니만큼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대부분이 '입'이나 '소리'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때로는 '출입구'나 '구멍'과 같이 단순히 모양자로 응용되기도 한다.

凵

갑골문

口

금문

口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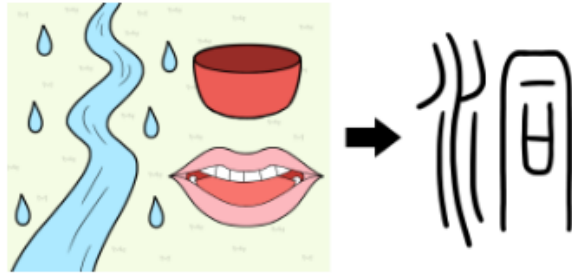
口

해서

<div>7</div> <div>-</div> <div>3</div>	<div>상형문자①</div> <div>  </div>								
<div>旗</div>	<p>旗자는 ‘깃발’이나 ‘표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旗자는 𣎵(나무길 언)자와 其(그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旗자를 보면 단순히 깃발만이 𣎵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斤(도끼 군)자가 더해진 𣎵 글자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소전에서는 斤자 대신 其자가 쓰이면서 발음역할을 하게 되었다. 군대에서 깃발은 소속된 단위를 상징했다. 그래서 旗자는 단순히 ‘깃발’이라는 뜻 외에도 다른 사물과 분간 할 수 있는 두드러진 ‘표시’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되었다.</p>								
<div>기 기</div>	<table> <tr> <td></td><td></td><td></td><td></td></tr> <tr> <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 </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div>7</div> <div>-</div> <div>4</div>	<div>회의문자①</div> <div>  </div>								
<div>同</div>	<p>同자는 ‘한 가지’나 ‘같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同자는 凡(무릇 범)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凡자는 큰 그릇을 그린 것으로 ‘무릇’이나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모두’라는 뜻을 가진 凡자에 口자를 더한 同자는 ‘모두가 말을 하다’ 즉,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모임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발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同자는 ‘함께’나 ‘같다’, ‘우리’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p>								
<div>한가지 동</div>	<table> <tr> <td></td><td></td><td></td><td></td></tr> <tr> <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 </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5

회의문자①



洞

굴(마을)
동/
밝을 통

洞자는 '마을'이나 '동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洞자는 水(물 수)자와 同(갈을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同자는 여럿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같다'라는 뜻이 있다. 고대에는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었다. 그러니 洞자는 사람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산다는 의미에서 水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同자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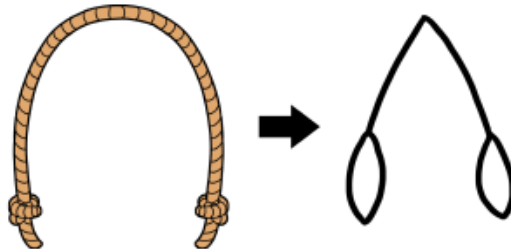
소전

洞

해서

7
-
6

회의문자①



冬

겨울 동

冬자는 '겨울'이나 '동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冬자는 冫(얼음 빙)자와 夂(뒤져 올 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冬자를 보면 긴 끈의 양쪽 끝을 묶어놓은 冫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줄이 풀리지 않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冬자는 본래 '끝나다'나 '마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冫자가 더해진 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糸(실 사)자를 더한 終(끝날 종)자가 '마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冬

갑골문

冬

금문

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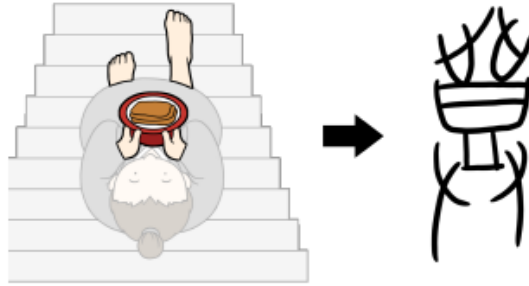
소전

冬

해서

7
-
7

회의문자①



登

오를 동

登자는 '오르다'나 '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登자는 𡵓(등질 발)자와 豆(콩 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豆자는 제기 그릇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登자의 갑골문을 보면 제기 그릇 위로는 𡵓자가, 아래로는 그릇을 받들고 있는 양손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소전에서는 제기 그릇을 들었던 양손이 생략되면서 지금의 登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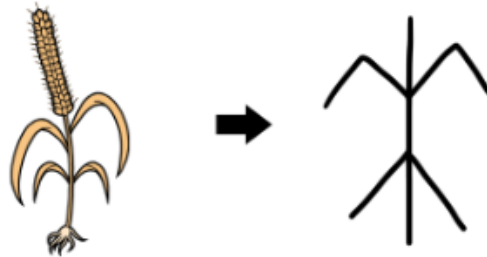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8

상형문자①



來

올 래

來자는 '오다'나 '돌아오다', '앞으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來자는 人(사람 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來자의 갑골문을 보면 보리의 뿌리와 줄기가 함께 來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來자는 본래 '보리'를 뜻하던 글자였다. 옛사람들은 곡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來자는 점차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來자가 이렇게 '오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夊(뒤져서 올 치)자가 더해진 麥(보리 맥)자가 '보리'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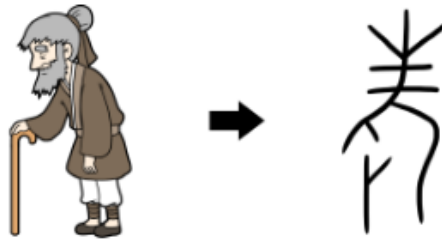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9

상형문자①



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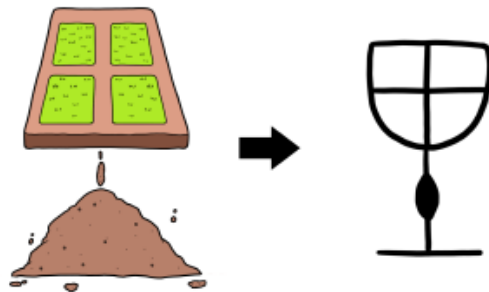
늙을/
노인
로

老자는 '늙다'나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예로부터 오랜 경험을 가진 노인은 공경과 배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노인을 그린 老자는 '늙다'나 '쇠약하다'라는 뜻 외에도 '공경하다'나 '노련하다'와 같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老자의 갑골문을 보면 머리가 형클어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耂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부터는 匕(비수 비)자가 지팡이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老자에 쓰인 匕자는 의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10

회의문자①



里

마을 리

里자는 '마을'이나 '인근', '거리를 재는 단위'로 쓰이는 글자이다. 里자는 田(밭 전)자와 土(흙 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밭과 흙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란 뜻이고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 里자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里자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의 행정구역을 뜻했기 때문에 1리(里)는 25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을 의미했다. 또 里자는 거리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여 1리는 약 400m의 거리를 말했다. 그래서 里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마을'이나 '거리'라는 의미를 함께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용한자에서는 주로 발음이나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